

## 홋카이도 - 서울특별시 우호교류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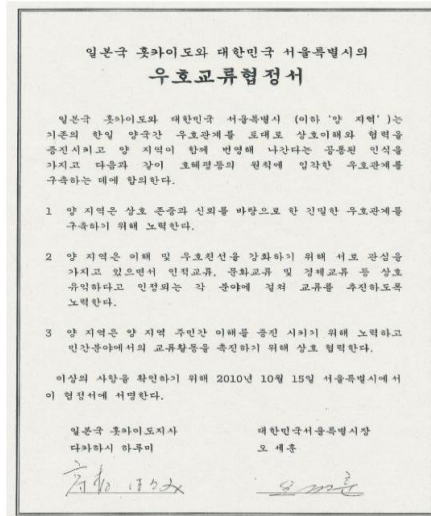
지난 10월 15일 다카하시 하루미 지사는 서울특별시 청사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우호교류협정서에 조인했습니다. 협정서에는 양 지역이 인적교류, 문화교류 및 경제교류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며 민간분야의 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조인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관광산업과 마케팅에 노하우를 가진 홋카이도와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홋카이도가 서울시에 관광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으며, 다카하시 지사는 “협정을 계기로 양 지역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민간 교류 촉진에 있어서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우호교류협정서 조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오세훈 시장(우)과 다카하시 지사(좌)

- < 홋카이도 자매우호 제휴도시 >
- 캐나다 앨버타주 (1980년 9월 5일)
  - 중국 흑룡강성 (1986년 6월 13일)
  - 미국 매사추세츠주 (1990년 2월 7일)
  - 러시아 사할린주 (1998년 11월 22일)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2005년 12월 14일)
  - 대한민국 경상남도 (2006년 6월 7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2010년 10월 15일)
- ▶ 현재 총 7개 도시와 자매우호 제휴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의 교류는 지난 5월 다카이 오사무 부지사를 비롯한 시라오이초 아이누민족 공연단이 ‘2010 지구촌한마당 축제’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그 기운이 고조되었으며 한 달 후인 6월에는 서장은 서울특별시 전 정부부시장이 다카하시 지사를 방문하여 시장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이번 우호교류 협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9월부터는 신치토세-인천 구간의 직항편이 3편 늘어 주 왕복 10편이 되었으며 출도착 시간대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과 이번 우호교류협정을 바탕으로 양 도시간 더욱 활발한 교류가 전개될 것을 바라며 현재의 연간 25만명의 교류를 넘어서는 많은 도민과 시민의 왕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호교류협정서에 참석한 양 도시 대표단의 모습

## 삿포로시 - 대전광역시 자매도시 체결

지난 10월 22일 대전광역시의 삿포로시의 자매도시체결식이 삿포로에서 열렸습니다. 양 도시는 2004년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각서’에 조인, 2005년에는 삿포로시 ‘삿포로 일한우호친선협회’와 대전시 ‘대전 삿포로 친선협회’가 자매제휴를 맺고 교류를 이어 온 가운데 금년 7월에는 우에다 삿포로 시장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자매도시 제휴를 약속한 바, 이날 자매도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식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삿포로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우에다 삿포로시장은 ‘올해는 한일합병 100년, 다음은 평화와 우호의 100년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도시 체결 조인식에서 양 시의 기를 바꾸어 들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좌)과 우에다 삿포로시장(우)

이번 자매도시 체결을 계기로 양 도시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 2박 3일 일정의 단기연수단 파견, 양 도시 축제 시 시민관광단 파견 등을 통한 관광진흥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 발전을 위해 공동 자매도시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와도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정에는 두 도시간 자매결연과 함께 대전 컨벤션뷰로와 삿포로 국제프라자 컨벤션뷰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와 삿포로 아사히가오카 고등학교, 대전 국제교류 문화원과 삿포로 국제프라자 간 시민교류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조인식에서 앞서서는 삿포로시 나카지마 공원에 자매도시 체결을 기념하여 두 도시간 우정의 상징으로 백목련을 식수했습니다.



→나카지마 공원에서 백목련 식수 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염홍철 시장(좌)과 우에다 시장(우)

또한 대전 오월드와 삿포로 마루야마 동물원간에 이루어진 동물교류는 양 도시의 우호친선 및 시민 간 우정을 잇는 가교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며, 공동목표인 환경·축제·첨단 경제 도시 건설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 감사관 홋카이도 연수

자치감사기구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도 감사관 연수단이 지난 9월 9일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입법예고)’과 관련하여 홋카이도의 자치감사기구 운영사례를 비교연구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연수에는 홋카이도 감사위원 사무국 정기감사실장이 발표자로 참가해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안, 감사기관의 운영방식, 감사요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감사자료 수집방법, 사전감사 시행 여부 등 홋카이도 감사제도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연수단과 의견교환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 아카레가 구청사 앞에서 기념사진

→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경기도 감사관 연수단의 모습



온천 천국 노보리베쓰시 (登別市)



일본 3 대 온천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보리베쓰 온천이 자리한 노보리베쓰시는 삿포로에서 약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온천욕을 즐기고 둘러볼 만한 관광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옥계곡**

약 1만년 전 히요리산의 분화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폭발화구의 흔적입니다. 직경 약 450m, 면적 약 11ha로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는 수많은 용출수와 분기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탕이 솟아나는 모습이 마치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환경성의 풍경 100선과 홋카이도 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유누마**

지옥계곡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곳 역시 히요리산의 폭발 화구 흔적의 늪입니다. 수면은 40~50도 정도로 수심이 깊은 곳은 130도 정도의 고온입니다. 오유누마에서 넘쳐흐르는 천연 온천을 이용한 족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굿타라호수**

온천가의 동쪽에 위치한 굿타라 화산의 화산호수로 그 투명도가 마슈호에 이어 전국 2번째를 자랑합니다. 또한 2년 연속 일본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맑은 날에는 온천가까지의 40분 하이킹 코스를 추천합니다.

**벚꽃길**

노보리베쓰역에서 온천가까지 약 8km 도로가에는 2000그루의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어 '꽃터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34년 황태자 탄생을 기념하여 노보리베쓰 지역민들이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다테지다이무라**

에도시대 거리 모습을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로 난자들의 장렬한 결투가 펼쳐지는 '닌자저택', 에도시대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일본전통문화극장', 무서운 요괴가 모여있는 '요괴 캄캄 오두막'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노보리베쓰 곰목장**

노보리베쓰 온천가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해발 550m의 산 정상에 위치한 곰목장입니다. 약 120마리의 큰곰을 사육하고 있으며, 애교넘치는 곰쇼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곰의 생태를 알기 쉽게 전시해 놓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노보리베쓰 마린파크닉스**

북유럽의 로맨틱한 거리를 연상시키는 곳으로 해양미술관은 성내부가 수족관으로 되어 있어 머리 위로 연어, 상어 등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환상적인 바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돌고래쇼와 펭귄쇼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노보리베쓰 온천축제**

풍부한 용출량과 다양한 수질을 자랑하는 노보리베쓰 온천물이 마르지 않길 바라는 염원과 함께 온천의 효능에 감사하고 번영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제로 매년 겨울 2월 3-4일에 개최됩니다.

노보리베쓰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http://www.noboribetsu-spa.jp/>



☆ 지금, 홋카이도는? 2010 삿포로 국제 단편영화제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 10월 11일(월)  
장소 : 삿포로 오도리 공원 화이트 록 씨어터(주요 회장) 및 삿포로 시어터 키노, 삿포로 토호 프라자 등

SAPPORO SHORT FEST 2010

올해로 5 회째를 맞는 「2010 삿포로 단편영화제」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의 6 일간 삿포로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세계 87 개 지역에서 2781 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그 중에서 '작품부문' 인터내셔널 콘페디션 57 작품, '필름제작부문' 25 작품을 선정해 영화제 기간 동안 삿포로 시내 각 영화관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제의 심사위원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총 5 명으로 한국 심사위원은 '똥파리'란 작품으로 유명한 '양익천'감독이 초대되었고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똥파리'가 특별 상영되었는데, 상영 당일 영화의 두 주인공이 영화관을 직접 찾아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삿포로 국제 단편영화제 홈페이지 <http://sapporoshortfest.jp/>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보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